

# 교정시설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 연 순(대구산업정보대학 겸임교수) · 엄 인 숙(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지만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관련한 자아탄력성(Klohn, 1996)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자아 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비행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주요 선행 변수로 스트레스(Tellegen, 1985, 이은미, 2001)와 학교생활적응(구자은, 2000; 이운주, 신지연, 2006)을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선행변수로 이들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행청소년이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 중 어떠한 상황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 둘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어떠한 부분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들의 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와 “부산 오류정보산업학교” 등 소년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교정시설인 소년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미 그들은 이전의 비행행위로 인해 보호시설에 감호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비행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은 친구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가정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학업영역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이 요구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에게 지나친 학교 규범을 강조하면 그들의 자아탄력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비행청소년 관련 이론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비행청소년들의 학교생활흥미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담임선생님의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편달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행청소년의 학교규범준수는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이므로 탄력적인 규범운용이 필요할 것이다.